



즉시 배포용: 2024년 6월 24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적정가격 주택 보험의 차별적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 발표

지침에 따라 보험사에 적정가격 주택 개발 등 부동산의 상태 또는 임차인의 소득원 등에 대해 문의하거나 가입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지시

*이에 앞서 주지사는 회계연도 2025 예산 합의에서 적정가격 주택 제공자 및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수령자에 대한 차별 금지 보장*

회람 내용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보험사에 적정가격 주택 개발 등 부동산의 상태 또는 정부 지원 등 건물 내 임차인의 소득원 등에 대해 문의하거나 가입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의 지침은 회계연도 2025년 예산에서 임차인의 소득원 또는 건물 내 적정가격 주택 여부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차별적 관행을 막는 Hochul 주지사 법안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우리는 보험사에 다음의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뉴욕은 적정가격 주택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 차별은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많은 적정가격 주택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 행정부는 모든 종류의 주택 차별을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공정을 보장하고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

Adrienne A. Harris 뉴욕주 금융서비스부 청장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의 적정가격 주택 서비스 제공자가 받는 차별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저는 서비스부가 더욱 공정한 금융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사명을 위해 차별에 대응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커미셔너인 **RuthAnne Visnausk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임차인은 Section 8 바우처 등 소득원 때문에 주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Section 8 바우처 수령자와 적정가격 주택 임차인에 대한 편견은 차별적입니다. 요율을 정하는 보험사

또는 임차인을 배제하는 주택 서비스 제공자가 하는 경우 모두가 차별에 해당합니다. 주지사의 지지를 받은 법안은 차별이 뉴욕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임차인과 주택 서비스 제공자 모두의 자금과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적정가격에 대한 우리의 투자가 과도한 보험 비용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뉴욕 주민들에게 주거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보험사는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 제외, 제한, 감하거나 보장 금액을 올리거나 보험 가입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고 내용을 묻거나 고려할 수 없습니다.

- 정부 합의에 따른 특정 소득 수준의 적정가격 주택이 건물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
- 주거 임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또는 협동 주거 조합의 이해관계자의 정부 임대 지원 수령 여부.
- 건물 주인의 소득원 또는 소득 수준.
- 건물이 유한책임조합, 공공주택 기관, 또는 특정 민간주택금융법의 규정에 따른 협동주택공사의 소유인지 여부.

이러한 중대한 법안에 앞서 DFS는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와 협력하여 적정가격 또는 정부 보조 주택 관련 부동산/재산 보험사의 관행을 검토하여 2022년 11월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두 기관은 적정가격 주택 개발 정책의 어려움과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던 적정가격 주택 개발업체와 협력했습니다.

회람의 사본은 [DF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주택 의제

DFS의 새로운 지침에 앞서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적정가격 주택 공급을 보존 또는 확대하고 뉴욕 임차인을 부당한 가격과 높은 임대료로부터 보호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택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회계연도 2025 예산의 일환으로 Hochul 주지사는 뉴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고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수령자와 적정가격 주택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차별을 막는 목적으로 랜드마크 주택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회계연도 2023 제정 예산의 일환으로 250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주택 계획(Housing Plan)에 대한 자금을 확보해 적정가격 주택 100,000세대를 건설 또는 보존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앞서 뉴욕주 주택 차별을 뿌리 뽑기 위한 주지사의 공정 주택 어젠다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주택 임대 및 판매 거래에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고안된 뉴욕의 공정 주거 시험 프로그램(Fair Housing Testing Program)을 220만 달러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주 전역의 6개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잠재적인 세입자 및 주택 구직자 역할을 할 비밀 테스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는 주택 차별 의혹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전문가, 지방 정부에 대한 공정한 주택 권리와 요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 주민을 주거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랜드마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주거 차별을 받은 뉴욕 주민은 [DHR 온라인](#) 또는 1-888-392-3644번으로 전화하여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